

## TASS통신의 선전적 기능\*

### The Propaganda Functions of the Soviet TASS New Agency

#### I. 서론

세계 5대 통신사의 하나이며, 공산주의 중추국 소련의 대표적 공식언론기관으로서의 TASS(Telegrafnoe Agentstvo Sovetskovo Soiuz-a the Telegraphic Agency of the Soviet Union)는 대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동서 양대 진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다. TASS의 이와 같은 국내외적 영향력은 비단 뉴스의 수집과 배포라고 하는, 통신사의 전통적 기능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TASS의 기능상의 보다 중요한 특성은,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 선전의 도구로서 소련 공산당의 기타 정치조직에 통합되어 있다<sup>1)</sup>는 사실에 있으며, 이점이야 말로 TASS를 자본주의 진영의 주요 통신사와 본질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조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거와 당위성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TASS의 기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전통적·본래적 역할에 대한 보편론적 검토뿐만 아니라, 소련 공산주의 언론의 이론적·실천적 발전과정에 초점을 둔 정치적·역사적 고구(考究)가 필수불가결한 것이 된다 하겠다.

TASS의 정치적 도구로서의 성격은, 그 창설과정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 온 불변의 것인 만큼<sup>2)</sup>, TASS를 상대적 독립성을 가진 하나의 자율적 기관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Antony Buzek가 TASS는

\* 추광영 『디지털 시대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05), 제5장.

1) Antony Buzek, *How the Communist Press Works* (New York: Praeger, 1964), 185.

2) Paul Lendvai, *The Bureaucracy of Truth: How Communist Governments Manage the News* (London: Burnett Book, 1981), Chapter 1.

도리어 공산주의 정책의 수행을 돕기 위하여 국내외적 선전(propaganda)과 선동(agitation)이라는 정치적 임무에 뉴스보도를 포함한 모든 활동을 종속시키는 등 선전시스템에 완전하게 통합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TASS의 임무와 기능은 소련 공산주의 정권의 대내외적 선전전략의 효율적인 수행을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하게 되었고, 이의 수행을 위하여 기타의 언론기관 및 유관부처와 협동적 관계에 편입되어 오케스트라를 연출하는 정치의 하부적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TASS의 임무와 기능은 따라서 소련의 다른 매스 미디어 기관의 그것들과 이론적 차원에서 동일한 것이 됨은 당연하다.

소련의 모든 언론기관이 동일한 철학과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하여, 동일한 목표를 위하여 기능하고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통제되는 '이데올로기의 역군'인 이상, TASS는 소련의 거대한 이데올로기적 도구 중 한 가지에 불과한 것이며 그러므로 신문 등 다른 미디어에 적용되는 원리들은 TASS를 논의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소련의 매스 미디어를 다룬 국내외의 여러 가지 저작물 가운데에서 TASS를 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거의 전부가 소련의 언론기관 및 매스 미디어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었다는 사실도 TASS의 중요성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소련의 매스 미디어들이 그 기능과 이데올로기에 있어 거의 분화되지 못하고 있다<sup>3)</sup>는 점에서 설명될 수 있지 않는가 한다.

위에서 살펴본 몇 가지 성찰과 사실을 토대로 하여 본고는 소련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그 실제적 전개과정에서 역사적으로 구체화된 언론철학을 검토하고 그것이 TASS의 통신사로서의 고유임무와 정치적 선전전략의 국내외적 수단으로서의 임무수행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그리고 TASS의 그와 같은 기능은 자유주의적 서방세계의 통신사의 그것과 비교하여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인가를 개략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Rosemarie Rogers, "The Soviet Mass Media in the Sixties," *Journal of Broadcasting*, 15:2(1971), 127-146.

## II. 공산주의 매스미디어 철학

TASS를 포함한 소련 공산주의 매스 미디어의 이론적 토대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에서 기원하여 볼셰비키의 혁명과정에서 정착된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비록 혁명과정에서의 매스 미디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그가 구체적 언론이론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지는 못하였다. 마르크스의 이론은 소련 공산주의 사회체제의 이데올로기적 틀을 포괄적으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소련의 매스 미디어 이론의 윤곽을 형성하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며<sup>4)</sup>, 소련의 매스 미디어의 철학을 실질적으로 마련했던 사람은 레닌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Mark W. Hopkins<sup>5)</sup>에 의하면,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의 언론의 역할에 관한 Lenin의 해석은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Lenin은 그의 저작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언론인으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중앙집권적 언론체제의 전형을 성립시켰으며, 또한 1924년 Lenin의 사후에 있었던 그에 대한 찬양은 그의 언론관을 성서의 위치에 자리 잡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Lenin에 의하여 실천적으로 정립되고 그 이후의 소련의 정치과정을 통하여 구체화되어 온 소련 공산주의 매스 미디어 이데올로기를 개괄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리라 느껴진다.

### 1. 언론의 개념 및 언론인의 역할

Lenin은 혁명투쟁에 있어서의 언론의 잠재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대중을 혁명에 동원·규합하고, 혁명을 대외적으로 확산·수출시키는 단합과 전파의 수단으로써 언론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Lenin의 이와 같은 언론관은 그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What is to be done?)」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4) 박유봉, “공산주의 언론의 이념적 배경과 시스템 분석,” 『사회과학정책연구』, 4권 1호(1982), 189.

5) Mark W. Hopkins, “Lenin, Stalin, Khrushchev: three concepts of the press,” *Journalism Quarterly*, 42, 2(1965), 523.

무엇보다 먼저 Lenin은, 신문은 집단적 선전자요, 집단적 선동자일 뿐 아니라 집단적 조직자로 파악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신문을, 축조중인 건물 주위에 세워진 비계(scaffolding)에 비유하고 있다. 즉, 그것은 구조의 윤곽을 명시해 주며, 건축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조직적 노동에 의하여 달성된 공동의 결과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그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라는 것이다.<sup>6)</sup>

즉, Lenin의 언론개념은, 매스 미디어를 뉴스의 수집·전파를 담당하는 단순한 채널 이상의 것으로 파악하고, 그 자체를 당과 함께 적극적으로 혁명의 확대에 참여하는 전술적 조직자요, 선전자로서의 정치적 판단으로 이해한다는 데에 특징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언론은 정치적 도구로서 인민대중을 지도하는 행정적 기능을 당을 위하여 제공함으로써 공산주의의 건설이라는 목표에 봉사하는 지도자의 임무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Lenin의 언론개념은 혁명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인 바, 그의 이와 같은 혁명지향적 언론개념은 그가 망명 혁명가로서 *Iskra*를 발행하여 이를 본국 러시아에 비밀리에 침투시켰던 사실을 감안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sup>7)</sup>. 즉, *Iskra*와 같은 소규모의 비합법적 언론을 통하여 Lenin은 혁명을 유발시키기 위한 선동활동을 전개했던 것이며, 그의 그러한 경험이 언론에 대한 ‘선전자, 선동자, 조직자’로서의 전면적인 역할부여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정권의 교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혁명이 완수된 지 오래인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인민대중의 정신적 장악과 전 세계의 사회주의화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으로서의 혁명은 계속되고 있으며, 언론에 부여된 임무와 기능은 *Iskra* 시절에 있어서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리하여 소련의 정보 및 선전 도구로서의 언론의 주된 임무는 변함없이 “소련 인민대중과 모든 새로운 세대들

6) Paul Lendvai, *The Bureaucracy of Truth: How Communist Governments Manage the News* (London: Burnett Book, 1981), 21에서 재인용.

7) Leo Guilow, “The Soviet Press: Propaganda, Agitator, Organizer” in R. M. Christenson & R. O. McWilliams, eds., *Voice of the People: Readings in Public Opinion and Propaganda* (New York: McGraw-Hill, 1962), 395-400.

을, 마르크스-레닌주의 교리의 흔들릴 수 없는 기초에 의거하여, 역사적 진실에 대한 무적의 무기와 사회발전의 법칙과 전망에 대한 심오한 이해로 무장시키는 것<sup>8)</sup>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조화된 언론시스템이 완벽한 통제와 정치적 교화에 복속된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소련 공산주의 언론은, 공산당의 전반적 노선에 그 활동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당의 결정사항의 효과적 수행에 봉사하는 한편 당의 지시에 의하여 철저하게 지도받는, 당의 독점적 통제에 의하여 감독받는 기관으로 정착되었다. Buzek<sup>9)</sup>는, 소련의 언론이 공산당의 목적에 봉사하도록 통제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즉, (1) 설립허가와 재정문제에 있어서의 언론의 공산당에의 절대적 종속; (2) 선별되고, 정치적으로 훈련받은 신뢰성 있는 언론인의 임명; (3)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조직적 문제에 관한 당과 정부의 효율적 지도체제; (4) 지시사항의 수행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효과적 체제; (5) 검열이 그것들이다. 소련 공산주의 언론에 대한 당의 통제는 비공산주의 독재국가에 있어서와 같은 검열의 영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행정적·관료제적 제도로서의 검열은 공산국가에서는 언론통제의 감독수단의 서열 중에서 최하위에 위치할 정도로 다층적이고 철저한 것이 되고 있다<sup>10)</sup>. 소련의 언론은 인쇄시설, 운영자본, 신문용지 등 소요물자에서부터 타자기, 문구류와 쓰레기통에 이르기까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정부부처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소련 공산당 최고회의간부회에 의하여 취해진 결정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선동·선전국(Agit-Prop)의 세부적인 지시사항을 면밀하게 추종하고 있다<sup>11)</sup>. 소련 언론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임무와 권한을 최종적으로 위임받은 기관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Agit-Prop이다.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최고회의간부회(Presidium)에 의하여 당의 노선이 결정되고 나면, Agit-Prop는 소련의 모든 언론기관의 활동에 대한 계획입안자, 지시감독자이며 ‘파수견’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sup>12)</sup>.

8) Pravda, May 6, 1979. Lendvai, *The Bureaucracy of Truth*, 21에서 재인용.

9) Lendvai, *The Bureaucracy of Truth*, Chapter 8.

10) Ibid., 113.

11) Ibid., 19.

Agit-prop은 대내적으로는 Pravda를 위시한 중앙, 각 공화국, 지방의 각급 언론 기관들을 마치 행정관료조직과도 같이 전국적으로 조직된 Agit-Prop의 하위조직으로 묶어 각각 통제·감독한다. 즉, 소련의 통제체제는 당의 언론기관의 조직체제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완벽한 통제체제에 의하여 소련 언론의 활동은 그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철저히 감독의 틀 속에 가두어지고 있다. 대외적 선전의 경우에 있어서도 Agit-Prop의 손길이 미치고 있음은 물론이다. 당중앙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된 대외선전전략은 Agit-Prop을 경유하여 해외의 외교관 및 사절들에게 전달·통고되고 있다. Agit-Prop의 활동범위로는, 신문·라디오·TV·통신사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승인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경제적·정치적 문제의 타결과 수습을 위한 체계적 캠페인을 주도하라는 지령에 대한 언론현안의 순응여부와 당의 중대한 결정에 대한 노동자 대중의 ‘반응’을 다루는 언론의 조치를 감독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면서 도 체제유지적인 것이 되고 있는 것이다.

소련 공산주의 언론의 기본적 임무와 그것에 대한 통제가 이와 같은 것인 만큼 소련 언론의 실무적 담당자인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정치성 역시 자유서방세계의 언론인의 그것들에 비하여 특수한 것일 수밖에 없게 된다. 소련의 언론인의 바람직한 상은 Pravda의 한 사설에서 잘 요약되고 있다. 즉

언론인은 당의 목적을 위한 능동적 투사(歸士)이다. 언론인에게는 선량한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는 또한 인생에 관한 지식과 더불어 그 자신의 사상을 레닌주의적 입장에서 신속성 있고 날카롭게 발표할 수 있는 명확한 견해를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론인과, 언론에 기고하는 공적 활동가들은 인생을 그것의 모든 다양성 속에서 관찰하고, 무엇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인가를 적기에 지적해 내며, 이 시대의 해결되지 않은 사명에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갈고 닦지 않으면 안 된다.<sup>13)</sup>

12) E. M. Kirkpatrick, "Communication Media as Channels for the Communist Message," in V. G. Whitaker, Jr. ed., *Propaganda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an Francisco: Chandler, 1962), 74.

13) *Pravda*, July 27, 1965. *Lendvai, The Bureaucracy of Truth*, 19-20에서 재인용.

즉, 언론인은 당을 위한 투사로서의 정치적 에이전트이며 그러한 사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한 자질의 계발에 매진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객관적 관찰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서구의 언론인관과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직업윤리로 무장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견해’와 ‘사명’ 역시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과 혁명의 보급을 통한 공산주의의 전파를 위한 ‘당’에의 봉사자로서의 자질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런 점에서, Lendvai는 소련의 언론인을 바로 ‘당의 관리(functionary)’로 파악하고 있다<sup>14)</sup>. 언론인은 그의 프롤레타리아 공산당의 시각을 기준으로 모든 사회적 이슈를 판단하여야만 하며, 그럼으로써 그의 당에 절대적으로 헌신하며, 당의 교시에 복종해야만 하는 ‘당의 도구의 직접적 연장’<sup>15)</sup>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비추어, 소련 언론의 주요 간부들의 임명은 당에 의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언론인의 훈련을 당이 장악한다는 사실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못 된다.

소련의 언론이 실행하는 대중적 선전이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선전전략 및 노선과 조화되지 않는 뉴스나 견해에 의하여 그것의 효과가 잠식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선전의 성공여부는 선전에 대한 조화적 사향의 공포와 부조화적 내용의 규제정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소련의 언론통제에 있어서 검열이 최하위적 수단이라고 하여, 검열의 기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현실을 참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된다<sup>16)</sup>. 소련 언론에 대한 검열은, 검열의 전통적 개념인 비공산국가에서의 소위 부정적 통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특징이 있다. 소련 언론은 당의 정책과 목표에 유해로운 사향이나 내용의 공포를 언론자체의 자발적 검열(self-censorship)에 의하여 능동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당과 정부의 교시내용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특정 뉴스나 내용의 적극적 공포라고 하는 적극적 검열(positive censorship)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언론에 대한 검열은 당과 언론인의 서열구조상의 각 부분의 협동적 과정으로

14) Lendvai, *The Bureaucracy of Truth*, 21.

15) Leo Guilow, *Voice of the People: Readings in Public Opinion and Propaganda*, 397.

16) Buzek, *How the Communist Press Works*, 131.

전개되고 있으며, 언론인의 정치의식에 의하여 자발적 검열이 행해지는 ‘이단계적 과정’<sup>17)</sup> 속에서 실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공산주의는 이러한 모든 통제과정에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공식적 검열을 수행하는 특수한 기관을 설치하였는 바, 그것이 바로 Glavlit이다<sup>18)</sup>. Glavlit은 언론의 자발적 검열에도 불구하고, 보도의 최종적 점검수단으로 기능한다. Glavlit은 ‘반 소비에트적’ 내용과 군사기밀, 외설적 보도내용, ‘민족주의적 또는 종교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허위정보’를 포함하는 기사의 공표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기술한 바 있는 Agit-Prop의 소련 언론에 대하여 적극적 통제를 담당한다면, Glavlit은 부정적 통제를 주로 담당하는 기능상의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철저한 중첩적 통제 속에 놓인 소련의 언론은 결국 기존의 정치질서의 변동이 아니라 강화를 목적으로 인민대중을 동원하여, 대중 사이에서 발생하는 적대감과 도전을 말살시킴으로써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대중조작의 하수인으로서, 또 Jacques Ellul이 말하는 사회통제 적선전의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2. 소련 언론의 뉴스 및 정보개념

소련의 언론은 정확성·객관성·조속성 및 정보전달 기능을 강조하는 서구적 뉴스개념과는 다른 기준으로 뉴스가치를 평가한다. 소련의 언론은, 공산주의 언론의 임무는 인민의 교육과 조직이므로, 뉴스 역시 이러한 임무를 도우는 것 이어야만 한다는 레닌주의적 뉴스개념에 입각하여 있다. 모든 뉴스는 특정 목적을 일깨워 주며, 무엇인가를 선동하는 것이 아니면 무용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뉴스는 계급적 이익을 위한 선전·선동에 봉사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Lenin의 뉴스개념의 요점이다<sup>19)</sup>.

소련의 언론이론가인 Kuzmichev 역시 Lenin과 다름없는 정보개념을 주장하

17) Ibid., 140.

18) Mark W. Hopkins, "The Meaning of Censorship and Libel in the Soviet Union," *Journalism Quarterly*, 47:1(1970), 118-125.

19) Buzek, *How the Communist Press Works*, 168-169.

여, 정보의 목적은 ‘노동자 대중을 조직하는 것’이며 ‘계급투쟁의 수단’으로서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20)</sup>.

또한 TASS의 사무장을 지낸 Palgunov의 정의 역시 레닌주의적 입장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Palgunov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뉴스는 조직되어야만 한다 ... 뉴스는 그렇고 그런 사실이나 사건의 보도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뉴스나 정보는 명확한 목적을 추구해야만 한다. 그것은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점진적 이행의 도상에서 우리 소비에트 사회와 소비에트 인민대중이 당면하는 기본적 임무와 관련된 결정들에 봉사하고 지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보는 사실들을 통한 선동이다. 그것은 교육하고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 정보의 목적은 선별된 사실과 사건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sup>21)</sup>

Palgunov의 이러한 뉴스 및 정보의 개념은 오늘날까지도 소련을 비롯한 모든 공산주의국가 언론인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Pravda*에 의하여 표방되고 있는 뉴스의 개념 역시 Palgunov의 뉴스개념의 복사판이다. “언론은 발생한 사실의 설명으로서의 사실의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사건과 현상과 새로운 경험 (novelties)의 목표지향적 기술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sup>22)</sup>

이러한 정치지향적 뉴스가치 평가기준에 따르는 소련 언론의 보도내용은, 결국 당의 정책이나 경제적 발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거나 뉴스 가치를 가지며, 그 밖의 거의 모든 사항은 중요성이 없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하는 원칙에 의하여 선별되는 편향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sup>23)</sup>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든, 인위적·기술적인 것이든 모든 사고와 재앙은 “좋은 뉴스가 뉴스이며, 나쁜 뉴스는 진정한 뉴스가 될 수 없다”는 원칙에 의하여 보도로부터 통제된다. 그러한 뉴스의 보도는 도덕적 기준을 타락시키고 책임감 있는 언론을 붕괴시키는 ‘서구적 센세이션얼리즘’에 빠지는 죄를 범하게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

20) Ibid., 169-170.

21) Buzek, *How the Communist Press Works*, 171에서 재인용.

22) *Pravda*, September 16, 1968. Lendvai, *The Bureaucracy of Truth*, 56에서 재인용.

23) Lendvai, *The Bureaucracy of Truth*, 54.

이다. 소련 언론이 적극적으로 보도해야 하는 뉴스란, 소위 자본주의 밑에서 신음하는 세계인민의 참상,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모순과 점증하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와해되어 가는 서방국가의 모습이며, 국내적 모순의 증대와 계급투쟁의 확대에 의한 국가 간의 격차에 의하여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세계에 반하여 경제적 상호협력과 단결에 의하여 조화롭게 진보하고 있는 사회주의 세계의 번영과 그 속에서의 소련의 지도적 역할인 것이다. ‘선동자요, 선전자이며 조직자’이어야만 하는 소련 공산주의 언론으로서 이는 하나의 당연스러운 귀결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소련의 언론은 선동·선전지의 전형일 수 있으며, 뉴스를 보도하는 정보전달적 미디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련사회가 이미 현대적 매스 미디어가 잘 보급되어 있는 사회임을 보여주면서도<sup>24)</sup> 소련인민의 대다수가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라 기보다는 비공식적 사회접촉에 의한 구두적 전언(傳言) 커뮤니케이션(word-of-mouth communication)에 의하여 정보 및 뉴스를 획득하고 있다는 사실 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sup>25)</sup>.

### III. TASS의 역할과 기능

#### 1. TASS의 역사와 현황

소련에서의 통신사의 역사는 제정 러시아시대에까지 소급되는 것이나, TASS의 탄생을 위한 정치적 여건은 10월 러시아혁명에 의하여 성숙되었다. 볼셰비키 정권은 혁명 후 이전의 통신사 Petrograd Telegraph Agency(PTA)를 접수하여 인민대표위원회 산하에 편입시킴과 동시에 또 하나의 통신사 ‘전 러시아 노동자 농민 전사 대표자회의 중앙집행위원회 언론국(the Press Bureau of the

24) Rosemarie Rogers, “The Soviet Mass Media in the Sixties,” *Journal of Broadcasting*, 15:2(1971), 127~146. UNESCO, *World Communications: A 200-Country Survey Press, Radio, Television and Film* (Paris: 1975), 505-516.

25) Thomas Remington, “The Mass Media and Public Communication in the USSR,” *Journal of Politics*, 43:3(1981), 803-817.

All-Russian Central Executive Committee of the Councils of Workers', Peasants' and Soldiers' Deputies)'를 조직하였다. 그것은 볼셰비키가 PTA에 남아 있는 혁명이전 세대 언론인들을 불신하였기 때문이었다<sup>26)</sup>. 이 새로운 통신사는 신문들에게 선전문과 포고령을 제공하는 한편, 국제적인 활동까지도 수행하였다. 그러나 두 개의 통신사의 이와 같은 공존은 이들 사이의 갈등만을 불러 일으켰고, 효과적인 대외선전을 위한 유용한 도구를 필요로 하는 레닌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그리하여 레닌은 1918년 Russian Telegraphy Agency(ROSTA)라는 새로운 통신사를 설립시키게 되었다. ROSTA는 뉴스보도의 기능과 선전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내부에 Agit-ROSTA라는 선전과 선동을 전담하는 국을 설치하였다. Agit-ROSTA는, 그러나 곧 그 유용성이 평가절하 되기에 이르렀으며, 선동가와 선전가의 조직화와 훈련이라는 임무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공산당의 Agit-Collective라는 별도의 기관에 위임하게 되었다. 선동과 선전의 기능을 잃은 ROSTA는 뉴스보도만을 주요 임무로 삼는 서구의 통신사를 닮아가게 되었다<sup>27)</sup>. 그러나, 공산당의 편동과 선전의 요구에 맞도록 장식된 소위 '창조적 뉴스'의 개념은 그 후로도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ROSTA는 당을 위한 피쳐(feature) 기사를 계속 제공함으로써 당을 지지하였던 것이다.

볼셰비키 통치하의 ROSTA는 당에 충성을 다하는 통신사였으나, 1925년에 접어들면서 표면화된 소연방의 건설노력과정에서, 다른 공화국들의 독자적 통신사들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ROSTA는 그 국제적 뉴스 전파권한을 잃게 되었고, 그 기능은 새로 창설된 TASS에 위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ROSTA의 통신원들 및 ROSTA가 외국의 통신사와 체결한 뉴스교환협정은 그대로 TASS에 승계되었고, 1935년 TASS에 완전히 병합되기까지 ROSTA는 공화국 내에서의 뉴스수집 및 배포를 담당하며 TASS와 공존하였다. TASS는 1935년에 이르러

26) T. E. Kruglak, "The Role and Evolution of Press Agencies in the Socialist Countries" in B. Harasymiw, ed., *Education and Mass Media in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New York: Praeger, 1976), 86.

27) T. E. Kruglak, *The Two Faces of TAS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62), 19.

소련의 유일한 통신사가 되었으나, 이는 업무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Stalin시대의 권력의 집중화의 여러 현상중의 하나였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sup>28)</sup>.

소련 각료회의에 공식적으로 부속된 관영통신사로서의 TASS는 실제적으로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Agit-Prop에 의하여 통제받는다. 정책·조직·외국 통신사와의 계약 및 협정의 체결·해외지국의 설치 등과 관련한 모든 주요 문제는 당에 의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외무성의 일반정책과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TASS의 임무는 “소련과 외국의 상황을 특징짓는 정치적·경제적 기타 정보와 공적기록들을 소련과 해외에 배포하는 것”<sup>29)</sup>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외국의 뉴스뿐만 아니라 소련의 국내 뉴스의 수집과 배포에까지 관여하고 있다. TASS의 재정은 소련의 신문·라디오·TV 등 국내의 언론기관과 외국통신사가 납부하는 뉴스 배분요금에 의하여 자립적으로 충당되고 있다.

TASS는 각료회의에 의하여 임명되는 사무총장과 그 외 4명의 전무 및 주요 6개국의 국장 및 통신통제소장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모스크바에 위치한 본부는 외신국, 국내뉴스국, 국내뉴스 대외보도국, 외신방송국, 국내뉴스 방송국, 사진국 등을 주요 부서로 포괄하고 있고, 기타 스포츠뉴스국, 옵저버(observer)그룹, 통신통제소, 대외관계국, 총무국 등이 있으며 약 2천명의 정규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또한 TASS는 연방공화국들의 모든 지방과 지역의 중심지와 공업과 문화의 중심지에 통신원을 두는 한편, 각 공화국의 각각의 통신사로부터 국내뉴스를 공급받는다. 이들 공화국 통신사의 통신원까지 합하며, TASS의 국내통신원의 수는 500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해외의 100개 지점에 180여 명의 특파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모든 공산주의 국가의 통신사 및 AP, UPI, AFP, Reuters, Kyodo 등 50개국의 주요 통신사로부터 뉴스를 제공받고 세계의 모든 통신사에 뉴스를 공급한다<sup>30)</sup>. TASS는 이처럼 광범한 조직을 동원하

28) Ibid., 20-21.

29) Buzek, *How the Communist press works*, 187.

30) UNESCO, *World Communications*, 509.

여 1961년 비관영통신사로 발족한 NOVOSTI와 함께 소련의 대내외 선전전략의 중요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 2. TASS의 대공산권 선전기능

TASS의 기능은 통신사로서의 전통적인 고유의 임무인 뉴스의 수집 및 배포라는 관점만을 통해서서는 적절히 이해될 수 없다. 앞에서 논의된 바 있는, 소련 언론의 기본이념과 그 실천원리는 TASS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TASS의 기능은 서구자본주의 세계의 통신사들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되고 만다. TASS는 그것이 뉴스와 정보의 수집·배포를 담당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서구의 통신사와 기능상 유사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당과 국가의 선전도구로서 기능한다는 뜻에서는 하나의 정치적 국가기관이라고 보아야 하겠기 때문이다. TASS의 이와 같은 정치적 도구성은 통신사로서의 매체적 특성과 관련하여 국내 및 공산주의 위성국가에 대한 대공산권 통합기능과 대서방세계 및 제3세계에 대한 공산주의의 확산을 위한 선전·선동노선으로 이원적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TASS의 대내적 기능은 소련의 광범한 매스 미디어에 대하여 전달되는 뉴스의 통제적 선별에서 발견된다. 즉, TASS는 모든 종류의 뉴스에 대한 규제·선별·배포를 담당하는 가장 신속하고 중요한 수단으로서 당에 봉사한다. 예를 들면, TASS는 당과 정부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보도자료(press release)를 받아, 이것들을 각각의 상대적 중요성을 미리 나타내주는 제목(headline)과 기사량으로 구성하여 각 언론기관에 배포한다. 소련의 서로 다른 매스 미디어의 보도내용은 그리하여 동일한 방식, 동일한 길이, 동일한 제목으로 나타나는千篇일률적인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오늘날의 소련사회에서는 대중들의 외국방송청취를 통한 뉴스접촉행위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사실<sup>31)</sup>은 소련의 매스 미디어의 정치선전 일변도의 보도상황에 비추어 또 다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인간속성에서 나온 당연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31) Ibid., Chapter 4.

뉴스 및 정보에 대한 가부장적 통제의 결과로서, TASS가 수집한 소위 ‘비밀 보고서(confidential bulletins)’는 극소수의 소련 특권층에게만 공개되고, 일반 인민대중에게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정치적 선전과 당의 교시만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TASS의 뉴스수집기능은 본질적으로 인민대중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을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일반대중에 대한 공표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사적 목적을 위하여 통신원을 고용했던 르네상스시대의 Fugger가(家)와도 같이, TASS는 당고위층과 그들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결정되는 정책의 효과적 침투의 채널이 되기 위하여 뉴스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Kirkpatrick의 주장과 같이, TASS를 비롯한 정보수집기관들은 당의 선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를 추구한다. 당은 (1) 당에 대한 적대적 환경과 그것의 조직적 세력과 관련하여 당의 내부적 능력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2) 외부적 조건과 내부적 역량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 당의 계획을 실천하고, 변화하는 조건에 따라 당의 전략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당의 힘을 행사하기 위하여 정보를 필요로 하는 바, TASS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당을 위한 정보수집에 있다고 하겠다<sup>32)</sup>.

소련의 정보 및 뉴스의 배분체계에 있어서의 인민대중은 정보를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행위주체가 아니라 소련 공산당의 심리전략과 선전의 과녁으로서의 소극적 객체일 뿐이다. Lenin과 Stalin에 의하여 명백하게 표명된 바와 같이, 아직까지도 프롤레타리아트는 설득과 강제를 필요로 한다고 파악된다. 공산당의 지도자들은 소련 인민대중은 과거의 ‘부르조아적 잔재’에 의하여 아직 까지 동요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엄격한 감시,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대한 빈틈없는 통제, 선동을 위한 방대한 계획의 실행, 단순한 주제에 대한 끊임없는 반복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sup>33)</sup>.

32) E. M. Kirkpatrick, "Communication Medias as Channels for the Communist Message" in V. G. Whitaker, Jr. ed., *Propaganda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an Francisco: Chandler, 1962), 73.

33) Wilber Schramm, "Soviet Concept of Psychological Warfare" in William E. Daugherty & M. Janowitz eds., *A Psychological Warfare: Casebook* (Baltimore, MA: Johns Hopkins Press,

TASS의 뉴스독점과 공산주의 인민대중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결속을 위한 선전기능은 소련 자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동구를 비롯한 공산권 위성국가들에 대하여 행사되는 TASS의 영향력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련에 관한 뉴스 및 정보의 대외적 보급과 외국으로부터의 신중하게 선별되고 조정된 뉴스의 수집은, 처음부터 TASS의 주요임무의 하나가 되어왔던 것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TASS는 어떤 외국에도 그 교두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종전 직후에야 당시 소련의 점령 하에 놓여있던 동구, 루마니아 등지에 TASS의 사무실이 문을 열게 되었던 것이다. 1940년대 후반에 이르러 비로소 동구와 아시아지역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TASS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는 공산주의 세계에 있어서의 소련의 지도력의 강화와 그에 따르는데 타 공산국가의 위성국화라는 국제정치적 변화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sup>34)</sup>.

그러나, TASS의 대공산권 지배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중공의 신화사의 등장에 따라 동남아시아 및 중동지역에서 TASS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TASS의 영향력을 과거의 독점적 지위로부터 하락하게 만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Buzek에 의하면, TASS가 위성국 각각의 특수한 문화적·정치적 배경에 따르는 특수한 뉴스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효율적이지 못했던 데 있었다<sup>35)</sup>는 것으로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그렇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위성국가들에 대한 소련의 정치적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한, TASS의 영향력도 위성국을 강력하게 묶어둘 것이라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

TASS를 통한, 소련의 대위성국 선전정책도 앞에서 논의된, 자국민에 대한 선전·선동과 다르지 않다. 공산주의 국가들의 다른 통신사들도 당의 명령을 전달한다는 기본적인 노선을 확실히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소련권내의 한 국가의 통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보도한다는 원칙이 성립되어 있는 등<sup>36)</sup> 기능과

1958), 779-788.

34) Kruglak, *The Two Faces of TASS*, Chapter 4.

35) Buzek, *How the Communist Press Works*, 190.

36) Lendvai, *The Bureaucracy of Truth*, 30.

조직에 있어 폭넓은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TASS가 이들 위성국 통신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바탕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이념적 통일성과 소련의 강력한 리더십을 배경으로 하여 TASS는 오늘날까지도 위성국에 대한 블록 게이트키퍼(bloc gate-keeper)이며 커뮤니케이션 센터(center)로서 위치하고 있다.

소련정책 또는 세계적 중요관심사에 관한 뉴스는 TASS라는 블록 게이트키퍼에 의하여 전파되기도 하고 보류·왜곡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TASS가 입을 다물면 동구 등, 위성국가들의 모든 뉴스미디어들에게까지 똑같은 침묵이 전달되어진다. 동구의 모든 언론기관이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관하여 TASS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모스크바-북경 사이의 갈등의 고조, 이집트로부터의 소련 군사고문단의 추방사건, 서방으로부터의 곡물 도입, 아프가니스탄 침공사건 등이 동구 언론에 미치는 TASS의 가부장적 권위를 나타내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자국의 뉴스에 관한 국가의 독점이 공산주의 세계 내에서 확립된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TASS의 요구가 있기 이전에는 타 국가의 미디어도 침묵을 지켜야만 했던 것이다. 심지어는 소련의 신문이 이미 보도한 내용을 유고슬라비아의 특파원이 허가 없이 보도했다고 하여 소련고위층으로부터 문책을 받은 사례가 있을 정도이다<sup>37)</sup>.

소련 및 타 위성국가의 매스 미디어들은 소위 각국 인민대중사이의 상호존중과 친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하에 활동해야만 하고, 객관적이면서도 선의지(善意志)를 가지고 사회주의의 건설에 이바지하여야만 한다는 대전제는, 그러나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소련의 대위성국 언론에 대한 직접·간접의 통제로서, 그리고 위성국을 소련의 영향권 하에 확고히 묶어두기 위한 선전전략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위성국들은 따라서, 소련권으로부터의 이탈을 규제하고, 소련에 대한 충성과 종속적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소위 '제국주의'의 위협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소련의 선전전략의 과녁이 된다.

Clews에 의하면, 공산주의 선전은 세단계의 접근방식을 취한다고 한다. 첫째,

37) Ibid., 32.

대중을 무관심과 현재에 대한 긍정으로부터 각성시키기 위하여 경고하고, 둘째, 체제의 과거의 실패를 회상시킴과 함께 미래의 도정(途程), 즉 역사의 필연성을 예언한 다음, 마지막으로, 앞에서의 예언과 회상이 야기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미래에 놓여진 새로운 노선에 따르는 긍정적 행동으로 바꾸도록, 공산주의적 문제해결에 바탕을 둔 희망으로 유인한다는 것이다<sup>38)</sup>. 한편 Barghoorn<sup>39)</sup>은 서구의 정치학자들이 정의하는 선전의 개념은 그것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상징 조작이라는 뜻에서 ‘왜곡된 커뮤니케이션’으로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반하여 정치적 메시아주의의 전통에서 성장해온 소련학자들의 선전개념은 교육에 비교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극히 긍정적인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소련선전의 이데올로기적 요소는 광신적 정치종교의 도구성을 떠나 대대적인 전체주의 PR 계획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TASS에 부여되는 대위성국 선전 및 정보의 통제업무 역시 소련 선전전략의 이와 같은 기본적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TASS는 첫째로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온갖 문제점에 관한 어두운 뉴스들을 제공함으로써 제국주의적 세력 확장의 도전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사회주의 및 제3세계진영의 인민대중의 의식에 경각심을 일으키며, 둘째, 소련과 그 종속적 위성국가에서의 공업·농업·문화·교육 등 제 분야에 걸친 성공사례에 관한 뉴스의 홍수를 국 내 외의 가맹 통신사 및 미디어에 제공함으로써 공산주의의 우월성과 역사적 필연성으로서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예언하고, 마지막으로, 소련을 우두머리로 하는 범공산권적 단결을 위하여 소련공산당과 정부가 마련한 정책의 전파에 의하여 동맹국의 공산인민을 이끌 노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TASS의 이 같은 선전기능의 목적은, Lasswell<sup>40)</sup>이 정의한 바와 같이 ‘세계지배의 물질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의 제공에 있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정치의식이 성숙되지 못한’ 인민대중의 의식개발을 위하여 ‘선동자·선전자·조직자’로서의 지도적 언론이 수행해야 할 선(善)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바로 그 목적의 효율적 실행을 위하

38) J. C. Clews, *Communist Propaganda Techniques* (New York: Knowledge Industry, 1965), 25.

39) F. C. Barghoorn, *Soviet Foreign Propagand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3-30.

40) Harold D. Lasswell, “The Strategy of Propaganda” in W. Schramm, ed., *The Process and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54), 538.

여 특정 뉴스의 규제라고 하는 부정적 통제와, 선전·선동을 위한 특정 종류의 뉴스의 능동적 배분이라는 적극적 통제가 동일한 목적을 가진 두 가지의 형태로 상호보완적으로 결합되고 있는 것이다.

### 3. 비공산권에 대한 TASS의 역할

TASS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 제3세계 등의 비공산권 국가들에 대하여 부여받고 있는 임무는 통신사로서의 고유한 기능 이외에도 두 가지 다른 측면을 보다 중요시하여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는, 대서방세계 및 제3세계에 대한 정치적 선전·선동활동이며, 다른 하나는, 이들 외국에 관한 정보수집, 즉 첩보활동이 그것들이다. 서구간의 데탕트 분위기에 따라 TASS가 대외적 선전을 비롯한 정치적 활동을 축소시키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TASS의 정치 도구성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은 서방세계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또한 TASS의 이러한 변화는 외교적 편의를 위한 것이지 본질적인 기능상의 변화로 이해될 만한 근거는 아직 없기 때문이다.

TASS의 대비공산권 선전활동은 사실은 독자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선전기관과 외무성, 다양한 방법과 수단, 이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총동원하는 오케스트라와도 같은 형식으로 나타난다.

TASS에 의하여 공표되는 대외선전의 내용은 본질적으로는 양극적이고 대립적인 가치들을 포함한다. 공산진영의 선(善)은 서방세계의 악에 의하여 더욱 부각된다. 공산주의자들은 평화를 사랑하나, 자본주의자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산주의자들은 군국주의자일 수 없으나, 서방세계는 수탈을 위한 군국주의에 호소한다는 식의 과장된 단순화와 비약이 TASS의 선전에 흐르는 보편적 주제이다. 그리하여 “세계에는 명백한 적이 존재한다.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 악을 증오한다. 악의 주된 대표자들은 소련 또는 공산당의 적이다. 소련정권과 당은 용감하게 그것과 대항하여 싸운다. 그러므로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모든 인민은 소련과 공산당을 동맹으로 여기고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의 논리가 형식화한다<sup>41)</sup>. 그와 같은 선전을 통하여 소련은, Lasswell<sup>42)</sup>이 말하는 바, 완전히 교화된 ‘중핵(primary nuclei)’을 적의 내

부에 창조하고, 다음 단계로서 이 중핵이 충분히 성장하여 독자적으로 다른 권력집단과 제휴하도록 도우며, 마지막 단계에서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당에 대한 신뢰감을 고양시켜 인민대중의 충성을 유지시킨다는 전략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한다<sup>43)</sup>.

TASS를 통한 소련의 선전전략의 목표는, 소련에 실제적으로나 잠재적으로나 적대적인 세력에 대항할 동조자를 지원하고 규합함으로써 소련의 정치적 고립을 국제적으로 극복함과 동시에 적과 경쟁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고립을 촉진시킴으로써 '세계지배의 물질적 비용을 절감'하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소련의 선전전략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보편적 목적과 주제에 기초하고 있으면서도, 각각의 지역과 국가의 서로 다른 역사적·정치적·경제문화적 또는 윤리종교적 조건과 배경에 따라 구체적 선전활동은 유동성 있게 전개된다. 즉,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에 대한 TASS의 선전내용이 뚜렷한 피아 개념에 의한 양분법적 흑백논리에 호소하고 있는 반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의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소련의 선전정책은 이보다는 우회적이고 회유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TASS를 통한 소련의 제3세계에 대한 침투공작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로, TASS는 침투대상 지역 및 국가의 통신사와 직접적이고도 우호적 접촉을 시도한다. 이 단계에서는 뉴스의 교환은 물론, 기술적 지원과 소련 등지의 공산국가에서의 침투 대상국 통신사 기술자의 훈련과 장비의 제공 등을 제의하는 방식이 병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음 단계로서는 현지의 언론인들에 대한 직접적 공작이 이루어진다. 제3세계 언론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이 과정은 현지 언론인들을 소련 또는 이용가능한 기타의 공산국가들로 초빙한다든지, 공산국가의 통신사의 고문단을 해당국가통신사에 파견하는 등의 형태로써 표면화된다<sup>44)</sup>. 이로써 제3세계 국가에 있어서

41) Paul Keeskemeti, "The Soviet Approach to International Political Communic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20:1(1956), 301.

42) Lasswell, *The Process and Efforts of Mass Communication*, 542.

43) Schramm, *A Psychological Warfare*, 780-782.

44) Buzek, *How the Communist Press Works*, 206-207.

소련의 TASS가 필요로 하는 ‘중핵(primary nuclei)’이 형성되고 소련에 우호적인 동조자는 ‘조직’으로서 규합된다. 그 다음 단계로서는, 이렇게 마련된 거점을 중심으로 소련의 정치적 선전의 확산을 위한 에이전트를 양성하는 직접·간접의 정치공작이 동원된다. 그러므로 TASS의 뉴스 수집이나 전파라는 활동은 사실은 정치적 임무수행에 속되는 부차적인 것이 되고 만다. 또한 모든 활동재원은 실질적으로는 본국 정부로부터 충당되기 때문에, TASS의 경제적 측면은 특별히 고려되지 않는다.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지역에 대한 TASS의 침투공작은 전후부터 줄기차게 이어져 내려와, 일단 정착에 성공하기만 하면, 특별한 정치적 상황변화가 공산주의의 전략을 후퇴시키는 경우가 없는 한 현상유지와 확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TASS는 급속한 제3세계 진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 확고한 국제적 통신사로서의 위치확보와 소련의 대외선전의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한 노력의 결과, TASS는 1956년 세계 40개 지점에 약 200명에 달하는 통신원을 파견하였고, 1962년에 이르러서는 20여 개의 지점을 더 개척하였을 뿐 아니라 통신원 및 뉴스 편집요원의 수도 300여 명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다. TASS의 최근 현황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TASS는 전 세계적으로 조직된 거점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세계의 내부적 모순과, 서방세계 사이의 갈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단결과 경제적 생산력의 증대, 미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역사적 필연성으로서의 공산주의의 승리,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도정(途程) 앞에서 제3세계 인민대중이 벌여나가야 할 행동노선과 소련에의 충성을 선전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을 전파하는 ‘당의 도구’로서의 성격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것이다.

TASS의 정치적 성격은 서방세계에서의 TASS 통신원들이 수행하는 정보수집활동에서도 유감없이 드러난다. TASS 통신원들은 소련의 공식적 정부기관 요원으로서의 외교적 면책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본국에서 서방세계에서의 자신의 권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파견된다. 그들은 통신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인 뉴스 수집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치적 첩보요원으로 이용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sup>45)</sup>. 이는 서방 세계 언론인들에게 하나

의 공공연한 비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주요임무는 정치선전원으로서의 그것 이외에도 소련의 고위정보특권층을 위한 ‘비밀보고서(confidential bulletins)’를 위한 뉴스수집작업이다<sup>46)</sup>. 그들은 뉴스보도를 전송할 뿐 아니라 그 지역 언론에 실리는 주요기사를 발췌하여 본국에 보고한다. 이 보고 역시 소련언론 일반에 적용되는 동일한 검토와 검열을 받아, 극히 한정된 고위층에게만 열람되고 있다.

TASS의 통신원들에 의하여 발췌되고 있는 미국 등 서방세계의 일간지의 기사들은 TASS에 의하여 전혀 다른 시각에서 재구성된다. TASS 통신원들이 본국에 송고하는 뉴스의 대부분이 미국 내 일간신문에서 발췌된 것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정치·경제 등 경성기사(hard news)가 대부분이고 관점도 극히 왜곡되고 일방적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sup>47)</sup> Kruglak<sup>48)</sup>의 분석에 의하면, TASS에 의하여 해외로 배포된 뉴스는 뉴스 관련국가와 소련과의 정치적 관계에 따라 기사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 즉 첫째, TASS는 질적인 면에서 공산진영의 기사를 취급할 때는 정치경제적 일치성과 협력을 강조하고 둘째, 중립국과의 관계를 보도할 때는 우호성을 강조하며 친근한 태도를 보이려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며 셋째, 자유진영에 관한 뉴스에 대해서는 내부적 갈등과 모순을 드러내는 측면을 강조하며 넷째, 동서양진영의 대립적 상황을 보도할 때에는 전적으로 공산진영의 입장을 지지하며, 각국의 공산당 활동을 지원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논의한 바 있는, TASS의 선전전략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서방세계에 대해서는 명백한 적대적 태도를, 공산진영에 대해서는 뚜렷한 우방의 개념을 그리고 제3세계 및 중립국가들에게는 접근을 위한 친선이 강조되는 등 선전전략이 대상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TASS의 구체적 행동은 달리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숨은 궁극적 목적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것이 세계의 적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중 하나임은 공산주의 이데올로

45) Kirkpatrick, *Propaganda and International Relations*, 203.

46) Lendvai, *The Bureaucracy of Truth*, 130-131.

47) Kruglak, *The Two Faces of TASS*, 105-106. N. C. Jones, “U.S. News in the Soviet Press, *Journalism Quarterly*, 43:4(1966), 687-696.

48) Kirkpatrick, *Propaganda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hapter 10.

기와 전체주의적 공산당의 정치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하나의 불변하는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IV. 결 론

공산당의 선전·선동·조직도구로서의 TASS의 정치성은 동서화해의 1970년대를 거쳐 오면서도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 들어 TASS가 비록 그 정치성을 표면적으로는 약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과거에 비하여 뉴스의 내용에 대한 속도의 상대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신속한 뉴스보도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실질적인 TASS의 정치도구성의 약화를 보여주는 증좌(證左)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와 같은 사실은 도리어 외부적인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TASS의 또 하나의 전략적 실천과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중공의 신화사 등의 공산권 국가들의 자체적 통신사 활동에 의한 TASS의 독점적 지위의 상실, 1970년대의 소위 데탕트 분위기의 고조에 따른 외교적 배려, 그리고 TASS의 첩보활동 등의 정치활동에 대한 외국의 비난의 의식 등 국제적 상황이 TASS의 정치적 선전전략을 과거보다 더욱 비밀스럽고 감추어진 것이 되도록 요구한데 대한 TASS의 변신적 응전이 표면적 비정치화를 가져왔다고 봄이 옳을 듯하다. 또한 TASS의 이와 같은 외부적 변화 역시 지극히 상대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며, TASS의 기능은 그 자체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소련 공산당의 지시에 의하여 규정되므로, 표면적인 화해 무드의 이면에 불변의 원리로 남아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전 세계의 공산화를 꿈꾸는 당의 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TASS의 정치성도 배제될 수 없을 것이다.

TASS는 앞으로도 공식적 기관으로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61년 새로이 창설된 NOVOSTI와 더불어 소련공산당의 정책과 그 우월성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공산진영의 내부적 결속과 소련의 리더십의 공고화, 대서방세계에 대한 이념적 투쟁과 선전 및 제3세계에의 혁명의 확산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봉사

하는 정치적 도구로서 기능할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이를 위하여 모든 통제수단과 방법이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동원될 것이며, 공산주의 치하의 대중들은, 전체주의가 추방하겠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회악보다도 더 유해로운 전체주의적 사회체제와 정보조작 아래에서 고통 받는 종속적 존재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TASS는 이러한 전략의 전술적 수단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